

# 체계론에 근거한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대한 인과적 모형

## Causal model of Urban Households' Subjective Financial Security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대학원생 김연정

충남대학교 가정교육학과

부교수 김순미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Graduate student: Kim, Yeon Jeo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

Associated Prof.: Kim, Soon Mi

### 목 차

I. 문제의 제기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변수의 고찰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ausal model of resources and demands, family financial management and subjective financial security among urban households based on system theory.

For this purpose, the data were collected by the questionnaire sheets. 455 housewives participated this survey in Seoul.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various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Percentile, ANOVA, F-test,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ubjective Financial Security according to resource variables and demand variables. Those variables were such as housewife's age, education, occupation, househead's occupation, per capita income, aspiration, expectancy, perception of financial progress and relative deprivation.

2. The higher family financial management level, the higher level of Subjective Financial security. And the higher family financial management plan · implement level,

the higher level of Subjective Financial security.

3. The lower debt/asset ratio, the higher level of Subjective Financial security.

4. Aspiration, per capita income and financial management variables showed direct effect on Subjective Financial security among all variables affecting the urban households' Subjective financial security. While housewife's education level, aspiration, per capita income and husband's occupation affected indirectly on the Subjective Financial security through family financial management.

## I. 문제의 제기

현대사회의 가정은 인플레이션, 세계정책, 불확실한 미래 등의 내적, 외적 경제적 환경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가정은 경제적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재정적 목표를 설정하며 이와 관련된 생활표준의 수립과 함께 가족원의 능동적인 역할변화등을 고려하게 된다.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경제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가족원의 요구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간, 에너지 및 화폐의 부족 문제이며, 둘째는 내적, 또는 외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러한 자원들의 효율적 사용방법에 관한 문제이다(Varcoe, 1990 : 58).

첫번째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가정은 현재의 소비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요구와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요구간에 평형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며 또 한편으로는 미래의 재정적 위험을 감소시키려 한다(Hefferan, 1982 : 48). 재정적 위험은 재정적 수입에 대한 잠재력이 감소하거나 전혀 없게 되는 재정적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미래의 재정적 안정(Financial security)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McGowan, 1981 : Power와 Meyer, 1983 : Garmen과 Fergie, 1987 ; Lang, 1988 ; Stum, 1989 ; 22-23).

두번째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가정이 경험하는 재정적 문제와 설정된 재정적 목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첫번째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원들의 고유한 가계관리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제한된 자원속에서 가정은 안정측면(정태적 측면)과 성장측면(동태적 측면)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정적 자원의 합리적인 분배를 하게 되

는 것이다(문숙재, 1983 : 112). 이를 위하여 가정은 재정적 상황과 미래의 재정적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과 재정적 자원의 관리방안개선등과 같은 가계관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가계관리과정의 예비적 측면은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목표와 관련되어 요구충족적인 소비수준과 자산의 축적, 위험에 대한 안정성확보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다룬 기존 연구는 가계관리 각 영역의 특정부분을 기술적으로 다룬 연구에 제한되어 있다(저축행동 - Hefferan, 1982 ; 크레디트사용 - Ethridge, 1982 등). 따라서 체계론을 적용함으로써 체계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이론적 또는 경험적 설명의 기준을 제공하고 전체적으로는 가족단위의 복합성을 조직화하기 위한 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관리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있어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Heck, 1983 : 118). 그러므로 가계관리와 재정안정도의 관계는 체계모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재정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가정의 가계관리능력과 인과적 방법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론의 적용을 통하여 가정의 요구나 경제적 자원의 충족, 그리고 각 가정이 수행하는 가계관리능력에 따른 주관적 재정적 안정수준을 파악하여 관리과정의 흐름을 통한 가계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조정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변수의 고찰

### 1. 체계론적 개념적 틀

가계관리의 개념화는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가족

자원관리 모델을 통해 이루어진다. 가족자원관리의 개념은 Paolucci, Hall과 Axinn(1978), Bubolz와 Sontag(1979), Gross, Crandall과 Knoll(1980), Deacon과 Firebaugh(1988)등 몇몇 학자들의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발달되어 왔는데 그 대표적인 접근방법으로는 체계론을 들 수 있다.

체계는 일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입-변환-산출 기능들의 집합이다. 가족자원관리의 체계는 내적으로, 인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관리적 하위체계를 통하여 상위체계인 사회환경과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게 하는 가족자원관리행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가정체계를 개방체계 또는 행동체계로서 파악하도록 한다(문숙재, 1990 : 123).

특히 Deacon과 Firebaugh(1988)의 체계론의 장점은 첫째, 가족자원관리의 의사결정에 포함된 각 변인의 상호관계를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시간연속선상에서 제시해 줄 수 있고 둘째, 각 관리행동영역에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특수한 문제 및 관리과정에 관련된 연구모형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Hough(1979)는 이러한 Deacon과 Firebaugh의 체계론을 위계적 체계모델(Hierarchical System Model)로 수정하였다. 특히 그는 변환 과정을 세분화하여, 계획과 수행을 표준적 계획, 전략적 계획, 계획의 수행과 평가의 4가지 위계적 기능수준으로 수정한 분석적 방법을 제시하였다(Beutler와 Herrin, 1987 : 296-297에서 재인용).

위계적 체계모델의 특징은 위계적 단계를 통하여 관리순서가 조절되는 융통성을 가지며 문제해결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표준적 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3단계를 표준적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관리수준으로 인식하였고, 또한 계획의 포괄적 의미와는 대조적으로 수행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였으며 산출단계인 평가를 변환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어 전체적인 관리체계의 논리성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의 모델들을 살펴볼 때, Deacon과 Firebaugh의 체계론과 Hough의 위계적 체계모델의 부분적 수정과 보완을 통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전체적인 가계관리능력과 의사결정과정을 체계적

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Deacon과 Firebaugh의 체계론을 기본으로 하고, 관리과정부문에 Hough의 위계적 체계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자원과 요구의 투입, 표준적·전략적 계획, 표준적·전략적 수행의 변환, 그리고 요구의 충족과 자원변화라는 산출의 통합된 체계 모델을 가계관리의 분석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 2. 주관적 재정안정도의 개념 및 측정방법

가정은 미래에 대한 준비, 적절한 생활수준, 미래의 안정, 생활수준 향상 등의 의미에서 재정적 안정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재정적 안정은 소득과 저축의 비율, 재정적 위험에 대한 준비도, 일반 소비수준, 순자산만족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재정안정도는 현재와 미래에 직면할 재정적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나 은퇴시 적절한 대응방안으로서 재정적 자원의 확보정도를 의미한다(Davis와 Helmick, 1985 : 127).

Davis와 Helmick(1985 : 126), Beutler와 Mason(1987 : 5)은 가정의 경제적 만족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Metzger(1980)의 생활의 질의 한 척도인 주관적 재정안정도를 적용하였고, Williams와 Berry(1984 : 36)는 부부간의 재정관리일치도와 미래의 재정안정도를, Titus, Fanslow와 Hira(1989 : 310)는 현금 지불능력과 순자산만족의 재정적 안정을 중심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Wilhelm, Iams와 Rudd(1987 : 16)는 가정의 주관적인 재정적 안정의 중심변수로 소득적정도, 생활수준 만족도, 현재 경제지위의 지각을 들었고, Schunittgrund와 Baker(1983 : 266)는 재정적 안정을 수입, 저축, 자산정도와 가구주직업의 만족, 미래의 높은 소득의 기대로 보았으며 Crawford와 Beutler(1983 : 47)는 생활수준, 생활표준에 대한 만족도, 위험에 대한 준비도를 제시하였다.

Suranyi-Unger(1981 : 220)는 순자산을 포함한 연구에서 가정의 주관적인 재정적 안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가정이 보유한 자산수준이 경제적 지위를 강화한다고 하였다. 또한 Ferber와 Nicosia(1973)는 순자산의 축적 및 보유는 자산 축적의 의사결정 및 미래의 재정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은퇴기의 부부 뿐 아니라 신혼부부에게도 중요하다고 했다(Williams와 Berry, 1984 : 33). 따라서 순자산으로 반영된 과거의 소득은 주관적인 재정적 안정에 대한 강한 예측요인이 되며 현재의 자원배분의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Williams와 Berry, 1984 : 34). 이와 같이 순자산만족을 포함한 포괄적인 주관적 재정안정도는 가정자산의 축적이나 형성으로 가정의 소비, 저축과 다른 금전관리 행동 등의 재정문제경험과 전반적인 가계관리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Titus, Fanslow와 Hira, 1989 : 311).

재정적 안정을 중심으로 한 생활전반에 관한 만족은 각 생활영역에서의 현실과 자신이 바라는 목표간의 거리를 의미한다. 이는 각각의 표준에 의해 정해지는 전반적인 생활의 질에 관한 객관적인 개념이면서 동시에 주관적인 개념이므로(Diener, 1985 : 543), 객관적·주관적 측정기제를 통한 평가가 필요하다(Strumple, 1973 : 102).

이러한 재정적 안정을 포함한 경제적 만족도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객관적 측정기제는 직접적인 화폐소득, 일정기간 동안의 지출액수준, 소득-순자산이었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총부채/순자산, 유동자산/순자산, 유동자산, 기타 금융자산/순자산 등의 비율이 측정기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Griffith, 1985 ; Prather, 1990 : 55에서 재인용).

이러한 경제요인간의 상대적 비율은 가정의 재정상태의 수준을 결정하는 잠재적 요인인데 일반적으로 자산비율은 일반가정의 재정상태, 지불능력, 순자산유동성 평가에 사용되고 각각의 비율을 통한 다른 가정과의 비교로 측정방법의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Prather, 1990 : 53). 이러한 객관적·주관적 지표의 평가는 전자가 명확한 지표를 제시하고 후자는 자료획득에 드는 비용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포괄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Fletcher와 Lorenz, 1984 : 343).

또한 객관적 측정기제와 함께 사용되는 주관적 측정기제에는 Cantrill(1965)의 자아준거 성취척도(Self-Anchoring Lader scale)의 단일지표가 있으며, 다항목지표는 Campbell 등(1976)의 6개 부분의 생활에 대한 일반 영향지표(Index of General affect),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3)의 생활만족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등이 있다(Diener, 1984 : 546에서 재인용).

따라서 이러한 주관적 기제는 객관적 기제와 상호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열망성취도 등의 주관적 기제와 객관적 기제인 부채대 순자산의 비율을 선정하여 소득과 저축의 비율에 대한 만족도, 재정적 위험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경제적수준에 대한 만족, 미래 은퇴시기에 대한 재정적 안정에 대한 만족, 가정의 순자산 정도를 포함한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대한 관계를 볼 수 있다.

### 3. 자원과 요구의 투입

가계관리 하위체계에서 투입은 요구와 자원으로 구성된다. 요구는 목표지향적 지표로 개인행동의 동기부여요소이며 체계과정을 통하여 요구의 충족을 이룬다. 또한 자원은 요구의 충족수단으로 체계과정을 통하여 자원변화를 산출하게 된다. 이러한 투입요소인 자원과 요구는 기존연구에서 개인의 객관적 자원요소에 대한 것이 중심이었으나 최근 연구에는 이러한 자원외에 개인가치가 개입된 주관적 기준인 열망성취도, 기대성취도, 경제수준상승감, 상대적 박탈감의 비교기준도 포함된다.

일반가정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상황인 자원변수는 영향력 있는 설명요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었다(Hafstrom과 Dunsing, 1973 ; Davis와 Helmick, 1985). 그러나 경제복지와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평가하는 주관적 인지 방법이 물적자산등의 객관적 방법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Michalos(1983), 김숙이(1988)의 선행연구에서 열망성취도, 기대성취도, 경제수준상승감으로 설명되었고, 주위환경과의 비교인 상대적 박탈감 역시 Diener(1984), Diener와 Emmons(1985)의 연구에서 중요변수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Wilson(1960), Michalos(1983) 등은 객관적 상황이 주관적 과정에 의해 중재되어 재정적 안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Kammen과 Campbell(1982)도 객관적 요인들이 주관적 재정적 안정의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고 하여(Emmons와 Diener, 1985 : 157-

160), 체계론의 투입요소으로써 자원과 요구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투입변수인 자원변수에는 주부연령, 주부학력, 주부직업, 가구주직업,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을, 요구변수에는 열망성취도, 기대성취도, 경제수준상승감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 4. 가계관리의 개념과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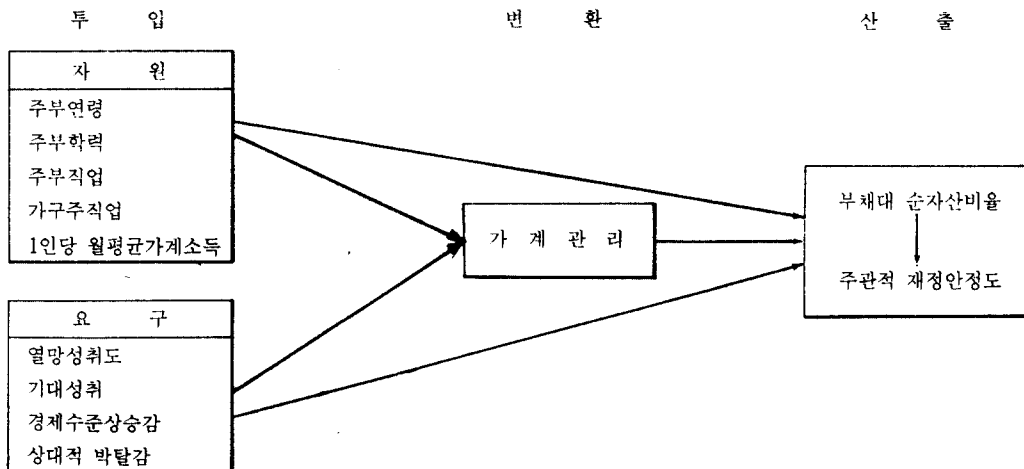
가계관리는 특히 재정적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자원관리체계의 관리적 하위체계내에서 인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자원을 배분, 조정하는 조직적이고 목표지향적 체계이며(Nickell, Rice와 Tucker, 1976; 김순미, 1986: 7)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이다.

가계관리의 목표는 가계를 이끌어가는 행동원리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요구를 찾아내어 분석, 비교 및 정리 검토를 하는 것이며, 가정에서 예측할 수 있는 요구의 변화를 계획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족원들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가계관리과정을 통해 가계관리목표를 위한 자원의 최적사용 및 조정, 구매의 다양화에 따른 상품선택의 판단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현재의 안정과 미래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Fitzsimmons과 Williams, 1976;

김병주, 1980; Grashof와 Dixon, 1981; 김순미, 1986: 7-14). 가계관리계획은 Hough(1980)에 의해 표준적 계획과 전략적 계획의 두 영역으로 분류된다. 표준적 계획은 가계관리 행동의 이상적 표준 또는 최선의 방안을 인지하며, 전략적 계획은 좀 더 세부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단계이다.

가계관리수행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표준과 각 가정의 가계관리계획에 따른 가정의 이상적 적응행동인 표준적 수행과 가계관리 계획과 표준적 수행영역과 일치하기 위하여 다소 일탈되더라도 조절행동이 이루어지는 전략적 수행단계로 분류된다. 보편적으로 가계관리는 개인보다는 가정의 재정관리를 의미하며 구매, 소비, 생산, 공급 등의 경제적 기능과 금융수단의 화폐기능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움직인다. 따라서 가계관리의 영역은 이러한 기능에 의해 금전관리, 저축관리, 지출관리, 자산관리로 구분되거나(Ferber, 1973: 30) 또 한편으로는 재정적 작용으로 간주되어 소득, 저축, 차입, 대출, 투자, 보험, 지출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Nickell, Rice와 Tucker, 1976; 김순미, 1986: 7).

이러한 것을 기초로 가계관리의 영역측면은 금전관리, 저축관리, 지출관리, 자산관리로 보았으며 과정은 계획과 수행으로 분류한 후 전략적·표준적 단계를 고려하여 가계관리과정을 파악하였다.



〈그림 1〉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관한 개념적 모형

### 5. 개념적 모형 및 연구문제의 설정

위에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과 관련변수의 고찰을 통해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변수와 변환변수의 분석, 그리고 제변수들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모형(그림 1)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도시가정의 주관적 재정안정도는 투입 변수인 자원변수와 요구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2> 도시가정의 주관적 재정안정도는 변환 변수인 가계관리에 의해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3> 객관적 재정안정도 지표(부채대 순자산의 비율)에 따른 주관적 재정안정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도시가정의 주관적 재정안정도의 인과 모형은 어떠한가?

## Ⅲ. 연구방법

### 1. 측정도구

#### 1) 투입변수

##### 가. 자원변수

자원변수는 주부연령, 주부학력, 주부의 직업, 가구주의 직업, 가구원수,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부의 직업, 가구주의 직업은 김영모(1980)의 분류를 근거로 하여 전문직과 비전문직으로 분류하였다.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은 총가계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누었다.

##### 나. 요구변수

요구변수는 최고의 생활수준을 10점, 최하의 생활수준을 0점으로 한 11칸의 사다리척도를 기초한 Cantrill(1965)의 자아준거적 성취척도를 사용하였다. 열망성취도는 개인이 궁극적으로 열망하는 소득 및 생활수준을 최고점인 10점을 전제하고 스스로 느끼는 현재 소득수준을 평가하게 한 후 10으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기대성취도는 5년후에 예상되는 가정의

기대소득을 평가하도록 한 후 현재 소득수준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또한 경제수준상승감은 현재소득수준에서 평가된 5년전의 소득을 빼서 그 차이를 통하여 상대적인 소득의 향상을 파악하였고, 상대적 박탈감은 주위 이웃이나 친지의 가계소득에 대한 인지수준을 평가하도록 한 후 현재소득수준에서 그 평가수준을 빼서 응답자의 가계소득의 차이를 통하여 상대적인 비교기준을 파악하였다.

#### 2) 변환변수

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Titus, Fanslow와 Hira(1989)의 계획지표와 수행지표 및 Ferber(1973)의 금전관리, 저축관리, 지출관리, 자산관리를 기본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Ferber의 가계관리영역을 설정한 후, Hough의 표준적·전략적 계획과 표준적·전략적 수행의 각 단계를 적용하여 16문항의 5점 Likert Type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16점에서 80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계관리행동의 능력이 높다.

#### 3) 산출변수

연구문제에서 제시하였던 객관적 측정기제인 부채대 순자산의 비율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부채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재정안정도 척도는 Beutler와 Sahlbergh(1979), Davis와 Helmick(1985), Titus, Fanslow와 Hira(1989)의 재정만족 척도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소득과 저축의 비율에 대한 만족도, 재정적 위험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경제적수준에 대한 만족, 미래 은퇴시기에 대한 재정적 안정에 대한 만족, 가정의 순자산 정도에 대한 만족의 4문항으로 5점 Likert Type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의 재정적 안정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다.

### 2. 자료의 모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1990년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100명을 조사하였고 결과분석후 일부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17

일까지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최종 455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PC SAS PACKAGE PROGRAM을 사용하여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고, 일원분산분석을 적용하여 F-test와 T-test, 중회귀분석,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간의 체계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적용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부의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41.1%로 가장 많고 가구원수는 4명이 45.9%, 주부의 학력은 고졸이상 72.6%를 보이고 있다.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은 15만원 미만이 32.1%, 15만원-36만원미만이 37.4%, 36-150만원이 30.5%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형성하고 있다. 가구주의 직업은 모든 직업에 고루 분포하고, 주부의 직업은 가정주부가 60.2%, 판매·서비스직이 19.6%의 순으로 나타났다.

IV. 결과 및 해석

1. 투입변수에 따른 주관적 재정안정도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하여 ANOVA와 F-test, T-test를 실시하였고, 하위집단간의 의미있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가. 자원변수에 따른 주관적 재정안정도

주부연령에 따른 도시가정의 주관적 재정안정도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간의 차이를 본 결과 20대-40대집단과 50대-60대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주부들이 50-60대에는 재정적 준비의 안정성으로 재정적 상태가 완숙기에 접어들며, 이에 반해 20대, 30대, 40대집단은 교육비, 주택마련 등의 과다한 비용으로 인한 과도기적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 긴장을 인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1〉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대한 분산분석

		주 관 적 재 정 안 정 도							주 관 적 재 정 안 정 도				
변수	집 단	빈도	평 균	D*	F, T값	변수	집 단	빈도	평 균	D*	F, T값		
주 부 연 령	20대	40	11.350	B	F= 2.76*	열 망 하	0.1-0.3	106	8.679	A	F=102.21***		
	30대	156	10.468	B		성취도 중	0.4-0.6	212	10.745	B			
	40대	187	11.032	B		상	0.7-1.0	106	13.075	C			
	50대	54	11.333	A		기 대 상	1.11-6	104	11.971	T= 4.07***			
	60대	15	12.533	A		성취도 하	0.42-1	348	10.647				
주 부 학 령	중졸이하	125	9.616	C	F=41.69***	경제수준 상	1-5	317	11.217	T=-2.94*			
	고 졸	179	10.631	B		상승감 하	-5-0	135	10.326				
	대졸이상	148	12.466	A		상대적 하	-5-0	203	12.207	T= 9.18**			
주 부 직 업	전문직	50	12.890	C	F=17.97***	박탈감 상	1-5	249	9.929				
	무직(전업주부)	171	10.993	B		가 계 하	16-47	74	10.108	B			
가 구 주 직 업	비전문직	131	10.130	A	F=39.92***	관 리 중	48-60	282	10.933	A F= 6.25*			
	전문직	198	12.091	C		상	61-80	96	11.656	A			
1 인 당 월 평 균 소 득	비전문직	227	10.282	B	F=85.44***	부채대	0	220	11.664	A			
	무 직	27	8.222	A		순자산	0.11-0.25이하	138	10.630	B F= 19.05***			
	15만원미만	143	9.028	C	F=85.44***	비 율	0.26이상	42	8.929	C			
	15-35만원	171	10.981	B									
	36만원이상	148	12.777	A									

\* P<.05 \*\* P<.01 \*\*\* P<.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주부의 학력에 따라서는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재정안정도를 높게 인식한다는 김숙이(1988)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이는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계에 대한 일반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남편과 유사한 학력등으로 더 높은 경제적 지위를 얻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부의 직업에 따른 주관적 재정안정도는 전문직 종사자, 가정주부, 비전문직 순으로 낮게 인식되며 이 결과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주부가 자신의 경제력에 대한 확신과 가족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가 높아 경제상황에 대해 자신감을 가진다는 Hira(1987)의 연구와 일치하며, 또한 무직과 비전문직 종사자간의 주관적 재정안정도의 수준 차이는 비전문직 종사 주부들이 가정의 생활보조의 수단으로서 자의적인 직업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아 전업주부보다 주관적 재정안정도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주의 직업에 따른 주관적 재정적 안정에 대한 인지수준은 전문직, 비전문직, 무직집단의 순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구주의 직업과 학력간은 강한 결합관계에 있어 사회경제적 지위를 형성하기 때문에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경제문제를 덜 경험한다는 Williams, Nall과 Deck(1976)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은 높을수록 가정의 주관적 재정안정도에서 더 만족함을 제시하여 Ahmad(1975)와 Danielewicz(197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 나. 요구변수에 따른 주관적 재정안정도

열망성취도가 높을수록 재정안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위치에 대한 주관적 판단정도가 재정안정도의 결정적인 변수임을 제시하고 있다. 기대성취도는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수준 상승감 척도도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이 적을수록 가정의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웃이나 친지등의 생활과 비교할 때 객관적인 자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주위 환경과의 상대적 우위나 열등의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Campbell(1976)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 2. 가계관리에 따른 주관적 재정안정도

〈연구문제 2〉를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이 전반적인 가계관리능력이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각 변수의 하집단과 중·상집단은  $p < .05$  수준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가계관리능력이 낮은 집단과 중간수준이상 집단간의 경제적 평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가계관리능력이 중간수준 이상의 우수할수록 주관적인 재정적 안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가계관리인 금전관리, 저축관리, 지출관리, 자산관리의 관리능력이 순자산의 재정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제시한 Titus, Fanslow와 Hira(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금전관리인 예산설정과의 정적관계를 제시한 Scott(197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본 표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가계관리의 계획과 수행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 3. 객관적 재정안정도 지표에 따른 주관적 재정안정도

〈표 1〉과 같이 객관적 재정안정도 지표인 부채대순자산비율에 따른 주관적 재정안정도는 부채비율에 따른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부채가 없는 집단은 주관적 재정안정도의 평균점수는 11.664점이고 비율이 .11-.25 이하인 경우의 평균점수는 10.630, .26 이상인 경우의 평균점수 8.929점을 비교해 볼 때 이 결과는 부채의 존재자체가 가정의 재정상태에 부담을 주며, 비율이 .25미만의 집단보다 그 이상의 집단이 더 강한 경제적 긴장을 보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비율에 따른 다른 경제적 만족도를 제시한 Scannell(199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 4.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대한 제변수들의 인과적 관계

〈연구문제 4〉의 검증을 위하여 변수들간의 pearson



의 상관관계 <표 2>를 기본으로 살펴본 결과,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

고자 경로모형에 의한 경로분석을 하였다. <표 3>은 1차 회귀분석결과로 가계관리, 부채대 순자산의 비율과 주관적 재정안정도의 각 종속변수에 대한 상대

<표 2> 제변수들의 상관관계

(N=455)

변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주부연령	-											
2. 주부학력	-.056	-										
3. 주부직업	.003	-.315	-									
4. 가구주직업	-.089	.535	.134	-								
5.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	.089	.557	-.320	.545	-							
6. 열망성취도	.223	.498	-.189	.528	.644	-						
7. 기대성취도	-.284	-.246	.130	.314	-.370	-.643	-					
8. 경제수준상승감	-0.050	.126	-.069	-.128	.105	.295	-.643	-				
9. 상대적 박탈감	-.135	-.299	.154	-.340	-.419	-.640	.445	-.233	-			
10. 가계관리	-0.40	.234	-.037	.227	.107	.211	-.091	-.013	-.146	-		
11. 부채대 순자산비율	-.043	-.072	-.036	.129	-.081	-.140	.075	-.012	.105	-.111	-	
12. 주관적 재정안정도	.106	.393	-.196	.451	.522	.615	-.383	.195	.270	.269	-.105	-

\* p<.05 \*\* p>.01 \*\*\* p<.001

<표 3> 경로모형을 위한 1차 회귀분석표

(N=455)

독립변수	종속변수		부채대 순자산비율		주관적 재정안정도	
	b	$\beta$	b	$\beta$	b	$\beta$
주부연령	-.062	-.068	-.0003	-.0052	.003	.009
주부학력	.369	.160*	.0025	.0030	-.009	-.010
주부직업	.012	.003	.0186	.0617	.103	.072
가구주직업	.480	.149*	-.0216	-.0804	.108	.085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	-.06E	-.201*	.258E-08	.0098	.02E	.188**
열망성취도	9.035	.068*	-.3545	-.1158	4.818	.332***
기대성취도	1.005	.068	-.0378	-.0309	-.180	-.031
경제수준상승감	-.560	-.107*	.0096	.0216	.111	.052
상대적 박탈감	-.152	-.045	.0080	.0283	-.062	-.046
가계관리			-.0059	-.0727	.062	.159**
부채대 순자산비율					-.039	-.008
Constant	47.5352		.0688		3.6620	
R <sup>2</sup>	.1094		.0364		.4455	
F-Value	5.585***		1.388		26.734***	

\* P<.05, \*\* P<.01, \*\*\* P<.001

〈표 4〉 경로모형을 위한 최종 회귀분석표

(N=455)

독립변수	종속변수		주관적 재정안정도	
	b	$\beta$	b	$\beta$
주부학력	0.417	0.181**		
가구주직업	0.467	0.145*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	-.06E	-.200*	2.756E-06	.230***
열망성취도	7.460	0.200**	6.143	.434***
기대성취도				
경제수준상승감	-.513	-.094		
가계관리			.060	.152**
Constant		46.4686		3.553
R <sup>2</sup>		0.1002		0.428
F-Value		9.199***		110.758***

\*p&lt;.05, \*\*p&lt;.01, \*\*\*p&lt;.001

적인 영향력을 제시하였는데, 부채대 순자산의 비율은 유의한 독립변수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최종회귀분석에는 제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경로모형의 설정을 위한 최종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가계관리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식은 열망성취도( $\beta=.203$ )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며, 그 다음으로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 $\beta=-.200$ ), 주부학력( $\beta=.181$ ), 가구주 직업( $\beta=.145$ )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며 가계관리에 대한 세변수의 설명력은 10% ( $R^2 : .100$ )이다. 즉 열망성취도가 높을수록, 주부학력이 높을수록,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이 적을수록, 가구주직업이 전문직일수록 가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계관리를 매개변수로 한 주관적 재정안정도는 열망성취도( $\beta=.434$ ),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 $\beta=.230$ ), 가계관리( $\beta=.152$ )의 순으로 영향력이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이 재정안정도의 42.8%를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열망성취도가 크면 클수록,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가계관리능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재정안정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의 최종회귀분석의 결과 제시된 각 종속변수에 대한 세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기본으로 하여 경로계수와 경로모형을 구하였다.

〈표 5〉는 인과모형을 위한 각각의 독립변수들의

인과적 효과와 비인과적 효과를 나타냈으며 〈그림 2〉는 이에 근거한 인과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표 5〉에서 보면 주부학력의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대한 총효과는( $r=.393$ )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상당히 약한 간접효과(.028)만이 존재한다. 이는 주부의 학력이 재정안정도에 대한 총효과나 분산분석을 통한 상대적 영향력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개변수인 가계관리를 통해 관리지식이나 관리전략의 수용여부 등과 밀접히 관계되기 때문에 간접효과가 부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의 총효과( $r=.522$ )는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니며 직접효과( $\beta=.230$ )와 가계관리를 통한 부적인 간접효과(-.025)를 지닌다. 이는 경제수준이 향상되면 가계의 긴축적 요인이 많이 제거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가계관리를 통한 간접효과는 매우 약하며 인과적 효과는 대부분 직접효과에 의해 설명된다.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대한 열망성취도는 정적인 직접효과( $\beta=.434$ )와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031)가 있다. 이 간접효과는 효율적 가계관리를 통한 경제적 실익이 재정안정도에 대한 낮은 열망성취도를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 높은 인과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가구주 직업의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대한 총효과( $r=.451$ )

〈표 5〉 제변수들의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대한 경로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인과적효과		비인과적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R <sup>2</sup> = .100 F=9.199***	주부학력	.181**		.012	.234***
	가구주직업	.145*		.024	.227***
	1인당월평균가계소득	-.200*		.273	.107***
	열망성취도	.203**		.008	.211**
R <sup>2</sup> = .428 F=110.758***	주부학력		.028	.365	.393***
	가구주직업		.022	.429	.451***
	1인당월평균가계소득	.230***	-.025	.318	.522***
	열망성취도	.434***	.031	.150	.615***
	가계관리	.152*		.118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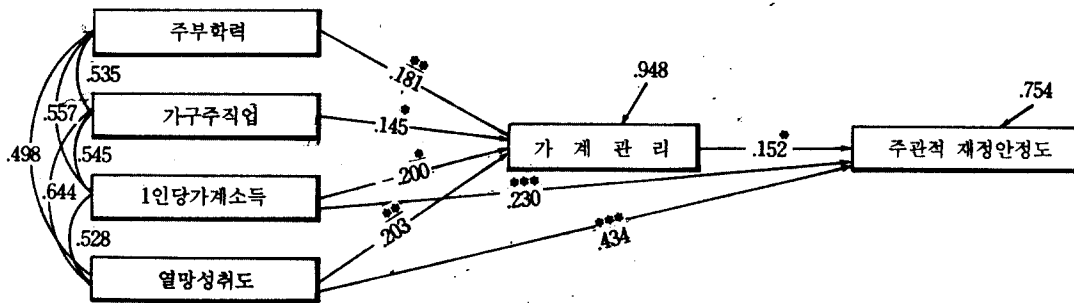
\*p<.05, \*\*p<.01, \*\*\*p<.001

는 정적 상관관계를 지니며 가계관리를 통한 간접효과(.022)만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가구주직업에 따라 주부의 경제적 인식의 차이가 반영되며 가계관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매개변수인 가계관리의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대한 총효과( $r=.270$ )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고, 변수자체가 독립적으로 정적인 직접효과( $\beta=.152$ )를 보인다. 이 결과는 가계관리의 조정 및 합리적 관리를 통해 주관적인 재정안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계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대한 제 변수들의 설명력은 42.8%이며 가장 큰 기여변수는 열망성취도이고,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 주부의 학력, 가계관리, 가구주직업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대한 열망성취도,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 가계관리의 직접효과와 동시에 매개변수인 가계관리를 통한 주부학력,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 열망성취도, 가구주직업의 간접효과를 의미한다.

이는 순자산만족과 가계만족에 대한 가계관리자의 능력의 직접효과를 제시한 Titus, Fanslow와 Hira (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가계관리자의 능력에



〈그림 2〉 주관적 재정안정도의 인과모형

대한 교육과 효과적 가계관리전략에 대한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능동적인 가계관리능력보다 가계소득 등의 상대적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가계관리능력의 증진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체계론적 관점에서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대한 경로모형을 검증하였다. 주부학력,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 열망성취도, 가구주 직업의 투입요소는 변환변수인 가계관리에 직접 효과를 나타내며 가계관리를 통해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대한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주관적 재정안정도는 전체적으로 직접적인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과 열망성취도, 가계관리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내생변수들을 회귀식에 포함시켜 각 독립변수간의 통계를 통하여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대한 영향력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주관적 재정안정도} = & 3.553030 + 2.756E - 06 *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 \\ & + 6.1432765 * \text{열망성취도} + 0.060078 * \text{가계관리} \\ & \text{위와 같은 회귀식을 설정한 후 경로분석에서 효과} \end{aligned}$$

를 제시한 제변수들의 집단별 평균치를 구하여 각 변수의 변화에 따른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한 것은 <표 6>과 같다.

<표 6>에서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이 5만원이고 가계관리가 상집단인 경우, 열망성취도에 따른 주관적 재정안정도의 변화추이를 보면 하집단의 재정안정도 점수가 8.99299, 중집단이 10.49686, 상집단이 12.13589로 나타나 열망성취도가 높을수록 재정안정도를 높게 인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이 50만원이고 열망성취도가 상집단인 경우, 가계관리수준에 따른 주관적 재정안정도의 변화추이를 보면 하집단의 재정안정도 점수가 10.84931, 중집단은 11.50795, 상집단은 12.13601로 나타나 가계관리능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재정안정도를 높게 인지함을 알 수 있다. 열망성취도가 중집단이고 가계관리가 상집단인 경우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이 5만원인 가정의 주관적 재정안정도 점수는 10.49686이며 50만원인 가정은 10.49698, 100만원인 가정은 10.49712로 소득별 주관적 재정안정도의 변화가 매우 약한 것을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의 평균치는 약 31만원으로서 가계관리능력이 높고 열망성취도가 상집단인 가정의 주관적 재정안정도 점수는 12.13596, 가계관리능력이 낮고 열망성취도가 하집단인 가정의 주관적 재정안정도 점수

<표 6> 가계관리를 매개변수로 한 주관적 재정안정도의 변화

1인당 월평균 가계소득	가 계 관 리								
	하			중			상		
	열망성취도			열망성취도			열망성취도		
	하	중	하	하	중	상	하	중	상
5만원	7.70628	9.21016	10.84918	8.36492	9.86880	11.50782	8.99299	10.49686	12.13589
10만원	7.70630	9.21017	10.84920	8.36494	9.86881	11.50784	8.99300	10.49687	12.13590
20만원	7.70632	9.21020	10.84922	8.36496	9.86884	11.50787	8.99303	10.49690	12.13593
31만원	7.70635	9.21023	10.84925	8.36500	9.86887	11.50790	8.99306	10.49693	12.13596
40만원	7.70638	9.21025	10.84928	8.36502	9.86889	11.50792	8.99308	10.49696	12.13598
50만원	7.70641	9.21028	10.84931	8.36505	9.86892	11.50795	8.99311	10.49698	12.13601
100만원	7.70654	9.21042	10.84944	8.36519	9.86906	11.50809	8.99325	10.49712	12.13615

\*\* 열망성취도의 평균치는 하집단이 0.2528, 중집단이 0.4976, 상집단이 0.7644이며 가계관리의 평균치는 하집단이 43.2807, 중집단이 54.2438, 상집단이 64.6979이다.

는 7.70635, 가계관리능력이 중간이고 열망성취도가 중집단인 가정의 주관적 재정안정도 점수는 9.86887이다. 주관적 재정안정도 점수의 평균치가 10.95점임을 고려할 때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과는 거의 관련 없이 조사대상의 대부분이 열망성취도가 상집단이상이며 가계관리능력은 중집단이상인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V. 요약 및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도시가정의 주관적 재정안정도수준은 자원과 요구의 투입변수와 가계관리인 변환변수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 신혼기나 중년기에 높은 주관적인 재정안정 수준을 보이며,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부의 직업, 가구주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열망성취도, 기대성취도, 경제수준 상승감이 높을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낮을수록 주관적 재정안정도를 높게 인식하였다.

둘째, 가계관리는 주관적 재정안정도수준을 강화시켜 주는 요인으로 주부의 가계관리능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재정안정도 수준은 더 높아졌다. 또한 가계관리 수행과 계획부분 역시 능력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재정안정도 수준이 높았다.

셋째, 객관적 재정안정도 지표인 부채대 순자산의 비율에 따른 주관적 재정안정도는 부채비율에 따른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부채가 없는 가정, .25 이하의 가정, .26 이상의 비율의 가정 순으로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차이를 나타냈다.

네째, 도시가정의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생변수인 가계관리는 주부의 학력,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 열망성취도, 가구주직업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주관적 재정안정도는 가계관리, 가구주직업,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 열망성취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최종 종속변수와 내생변수에 공통으로 직접 효과를 제시한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과 열망성취도가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관적 재정안정도의 경로모형에서 가계관리는 그 영향력 정도는 약하나 투입과 산출을 잇는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어 주부의 가계관리능력에 따라 가계의 주관적 재정적 안정의 수준은 다르게 인지될 수 있음을 나타냈고, 투입과 변환, 산출의 체계모형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약하나마 각 가정이 수행하는 가계관리 능력에 따른 주관적인 재정적 안정의 변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전반적인 가정관리와 특히 경제적 측면의 경제적 만족도에 가계관리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으로 합리적 가계관리수행과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교육적 배려가 요구된다. 그리고 주관적 재정안정도를 보다 정교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부채대 순자산의 비율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의 변수 등을 적용한 비교, 실증적 연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 부채대 순자산 비율이 회귀분석에서 유의하게 제시되지 않아 최종 경로모형에서 제외된 것은 응답율의 미비와 신뢰도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척도의 보완은 가계관리와 미래의 주관적 재정적 안정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경험하는 경제적 문제해결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강혜경, "도시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8권 3호, pp. 87~104, 1990.
- 2) 김숙이, "도시주부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3) 김순미, "도시가계의 금융자산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 중산층 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 4) 문숙재,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의식과 실태조사", 논총, 제37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pp. 351~368, 1980.
- 5) 문숙재, "가정관리이론 정립의 체계론적 접근에 관한 비교연구 (I)", 이화 가정학 60주년 기념교수 논문집,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편, pp. 119~145, 1990.
- 6) 윤숙현, "가정관리의 체계론적 접근을 위한 시도—

- 구매의사결정과 부부역할구조를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4권 2호, pp. 9~24, 1980.
- 7) 윤정혜, “도시 저소득층 소비자의 경제문제에 관한 연구 — 서울과 인천의 주부를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4권 2호, pp. 67~88, 1986.
  - 8) 여정성, “소비자 정보탐색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7권 1호, pp. 15~24, 1989.
  - 9) 임 정, “주부의 가계복지 인지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10) Abdel-Ghany, M. and S. Y. Nickolas, “Consumer, Consumption, and Family Economics Household Management Research, 1972-82: survey of the Past and outlook for Future”, *HERJ*, Vol.12, pp. 265~278, 1984.
  - 11) Balakrishnan, R., F. M. Firebaugh and K. Stafford, “Research on rural Family Resource Management: A Third world perspective”, *JCSHE*, Vol.10, pp. 185~193, 1986.
  - 12) Beutler, I. F. and D. A. Herrin, “Environmental context in family resource management”, *JCSHE*, Vol.11, pp. 295~304, 1987.
  - 13) ——— and J. W. Mason, “Family Cash-Flow Budgeting”, *HERJ*, Vol.16, pp. 3~12, 1987.
  - 14) ——— and K. M. Sahlberg, “Spending plans and the Family Managerial Decision Process”, *ACR*, Vol.11, pp. 480~486, 1979.
  - 15) Crawford, C. E. and I. F. Beutler,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Consumer Resource Management”, *JCSHE*, Vol.7, No.1, pp. 45~58, 1983.
  - 16) Davis, E. P. and S. A. Helmick,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The Impact of Reference Point”, *HERJ*, Vol.14, NO.1, pp. 123~131, 1985.
  - 17) ——— and J. A. Weber, “Patterns and Obstacles to Financial Management”, *Financial Counselling planning*, Vol.1; pp. 41~52, 1990.
  - 18) Diener, E.,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95, NO.3, pp. 542~575, 1984.
  - 19) Emmons, R. A. and E. Diener, “Factors predicting satisfaction judgement: A comparative examin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16, pp. 157~167, 1985.
  - 20) Ferber, R., “Family Decision Making and Economic Behavior”, in E. B. Sheldon (Ed.) 「Family Economic Behavior: Problems and Perspectives」 *Philadelphia: Lippincott*, pp. 29~57, 1973.
  - 21) Fletcher, C. M. and F. O. Lorentz, “Structural Influenc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indicators of economic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16, pp. 333~345, 1984.
  - 22) Hafstrom, J. L. and M. M. Dunsing, “Level of living: Factors Influencing the Homemaker’s Satisfaction”, *HERJ*, Vol.2, No.2, pp. 119~132, 1973.
  - 23) Heck, R. K., “A Preliminary Test of Family Management Research Model”, *JCSHE*, Vol.7, pp. 117~135, 1983.
  - 24) Hefferan, C., “Determinant and Pattern of Family Saving”, *HERJ*, Vol.11, No.1, pp. 47~56, 1982.
  - 25) Hira, T. K., “Money Management Practices influencing Household Asset Ownership”, *JCSHE*, Vol.11, pp. 183~194, 1987.
  - 26) Lown, J. M., “Family Financial Well-being: Guidance from Research”, *JHE*, Vol.78, No.4, pp. 5~8, 1986.
  - 27) Marlowe, J. and D. Godwin, “The Relationship of Income and Human Capital to Debt / Asset Ratio of Farm Families”, *HERJ*, Vol.17, pp. 93~109, 1988.
  - 28) Rice, A. M. and S. M. Tucker, “Family Life Management”,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pp. 341~345, 1986.
  - 29) Rowland, V. T., R. A. Dodder and S. Y. Nickolas, “Perceived adequacy of resource: Development of a scale”, *HERJ*, Vol.14, No.2, pp. 218~225, 1985.
  - 30) Scannell, E., “Daily Farm Families’ Financial Management”, *Financial Counselling and Planning*, Vol.1, pp. 133~146, 1990.

- 31) Schnittgrund, K. P. and G. Baker, "Financial Management of Low-Income Urban Families", *JCSHE*, Vol.7, pp. 261~270, 1983.
- 32) Slusher, B. J., "Are Financial Management Programs Helping Families?", *ACI*, Vol.2, No.2, pp. 13~18, 1990.
- 33) Strumple, B., "Economic Life-Style, Values, and Subjective Welfare: An Empirical Approach", in E. B. Sheldon (Ed.), "Family Economic Behavior: Problems and Perspectives", Philadelphia: Lippincott, pp. 70~124, 1973.
- 34) Stum, M. S., "Facing Long Term Care: A Risk Management Perspective", *Families in Transition: Structural Changes and Effects on Family Life*, Proceedings of the 1989 Pre-Conference Workshop, Family Economics-Home Management, *AHEA*, 1989.
- 35) Suranyi-Unger, T. Jr., "Consumer behavior and Consumer Well-being", *JCR*, Vol.8, pp. 218~225, 1981.
- 36) Titus, P. M., A. M. Fanslow and T. K. Hira,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ERJ*, Vol.17, No.4, pp. 309~317, 1989.
- 37) Varcoe, K. P., "Financial events and coping strategies of households", *JCSHE*, Vol.14, pp. 57~69, 1990.
- 38) Wihlelm, M. S., D. R. Iams and J. Rudd, "Husband and Wife Agreement on Indicators of Objective and Subjective Economics Well-being", *HERJ*, Vol.16, No.1, pp. 13~22, 1987.
- 39) Williams, M. Nall and P. Z. Deck, "Financial Problems of Urban Families", *HERJ*, Vol.4, No. 3, pp. 185~196, 1976.